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아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본보: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292호  
서기 2000년 11월 1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 자기 근본 자꾸 두드려야 '참나' 찾아

### 참나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문** 일전에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쭙었던 사람인데, 요즘은 예전보다 주인공에 대한 믿음이 좀 더 간절합니다. '나'가 없다면 이렇게 딱 벌어진 일체경계가 무의미하다는 스님의 말씀을 품으면서 이렇게 딱 벌어진 모든 상황속에서 '나'라는 생각을 슬그머니 한번 빼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끄럽게 돌아가던 세상이 금방이라도 멎고 '있는 그대로'가 되어버립니다. 일견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참으로 신기하게 생각됩니다. 물론 여태 내가 지나오던 습, 겁들이 모두 녹아 내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크고 작은 생활의 변화를 느낍니다. 계속해서 정진하고 싶습니다.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청합니다.

**답**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공부해나가는 과정에 계단 없는 계단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색이 자 공이고, 공이 자 색이라고 했으니, 나와 더불어 모든 게, 일체 처(處)가 다 공했습니다. 삼세심이 다 공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 저것 바깥에서 구함이 없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모든 것을 내 안의 근본에 맡겨놓고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결국은 그때에 진짜 관(觀)해야 됩니다. 편안해졌을 때, "주인공 당신이 있다면 증명해." "당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가만히 앉아서 좌선을 해서 편안해졌다고 한다면, 편안한 것이 공부라면 영 발전이 없습니다. 좌선을 해서 편안하다고 그것에 그냥 머물러서 "아, 이만하면 죽는 것을..." 한다던 그걸로만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발견했을 때, 내 안의 내 대상을 내가 들었을 때, 그때는 앞서의 그 습을 다 끊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에는 '무조건 다 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편안해지면 '나를 발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열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근본을 바깥에서 알고 하지 말고 안으로 자꾸 밀치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동안에 자기가 오히려 밝아지게끔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알고자 자꾸 문을 두드려다 보면, 문은 두드려야 열리지 두드리지 않는 문이 어떻게 열리겠어요? 가만 놔두는데 어떻게 열리겠어요? 주어진 일하면서 도 그냥 그 마음을 한 번 쉼 치고선 또 일하고, 잊고서 가다가 생각하면 또 한번 쉼 치고 일하고, 이래야 그 문이 나중에 부서지든지 그냥 열리지든지 어떻게 보든, 가만히 둔다면 영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공부를 지극하게 해서 이 생애 벗어나십시오. 세세생생을 전전 공공하며 이리 저리 떠돌리며 살게 된다면 그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 한평생 자식 위해 살았는데...

**문** 이렇게 많은 세월을 지내오면서 살아왔던 나날을 되돌아 볼 때, 저의 젊음과 노고를 다 바쳐서 오직 자식들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자식들에게 귀찮은 대상이 되고, 이렇기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나 허무하고 보람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평생 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서 아무 것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항상 들어왔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막상 자식들을 의지하고 원망하게 되는 제 모습에 저 자신도 놀라고 부끄럽습니다. 스님, 어떻게 자식들을 바라봐야 할까요? 크나큰 가르침 바라옵니다.

**답**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고 가는가를 살펴보면, 어려서 공부할 때는 부모의 말을 따라서 공부를 합니다. 아무 것도 보지 않습니다. 삶에 있어서 인간답게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공부하는 데만 쪽 올임을 하다가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공부를 다 터득했다 하더라도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가면 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인가 하는 것을 사회에서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맡은 분야를 공부합니다. 자기가 전자에 공부했던 것을 바탕 삼아서, 그것을 잘 하려니까 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허둥지둥 공부를 하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가정이 생겼고, 자식이 생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자식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기간도 서로 믿고 살다 보니 늙어서 오십이 넘다 보면 정년퇴직을 하거나 하는데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아하, 나를 발견했던 서까래가 하나 돌 빠져 달아나가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 둘 다 빠져서 나중에는 우두커니 그냥 자기 기둥만 서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홀연히 생각을 하니까, '아하, 내가 빈손 들고 나왔다 빈손 들고 가는 이 마당에 이 기둥 하나 서있는 거마저도 쇠퇴해 가는구나' 하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게 준비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이 도리를 모르니까, "이놈의 자식들아! 너희를 내가 어떻게 낳아서 기르고,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먹여 살렸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너희들은 너희 살 공리만 하고, 나는 한 달에 한 번 보거나 말거나 하는구나" 하고선 안 보아주고 노발대발하고 자식이지만 그냥 두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 세상살이가 다 그러한 거지. 본래 그러한 거 아닌가? 저 자식들이 나이기 때문에,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는 섭섭할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구나' 이라고선 그냥 홀연히 그런 생각을 다 내려 놓으면서 정말 여유롭게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게 우리가 마음 한번 먹기에 달린 건데, 나 괴롭고 자식들 괴롭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식들은 바로 내 씨가 내 나무를 만든 것이고, 내 나무에서 또 씨를 만들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나인 것입니다. 부모도 미래의 나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내 아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홀연히 가벼운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속 안 썩이고 잘 살고, 내가 잘 하고 사는 것이 바로 나한테 갖는 것이구나. 나한테 갖는 것도 없다. 내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잘 하고 살아라' 이라는 거죠. 그러나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싸우고 싸우고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하다보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복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그러면 남한테 의존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지만 의존하는 마음이 더욱 더 없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의존하는 생각이 있다면 모든 게 비틀어지고, 모든 게 속상하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이고, 나를 박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나대로 더 비참하게 힘이 더 줄어들고 병이 들고 이렇게 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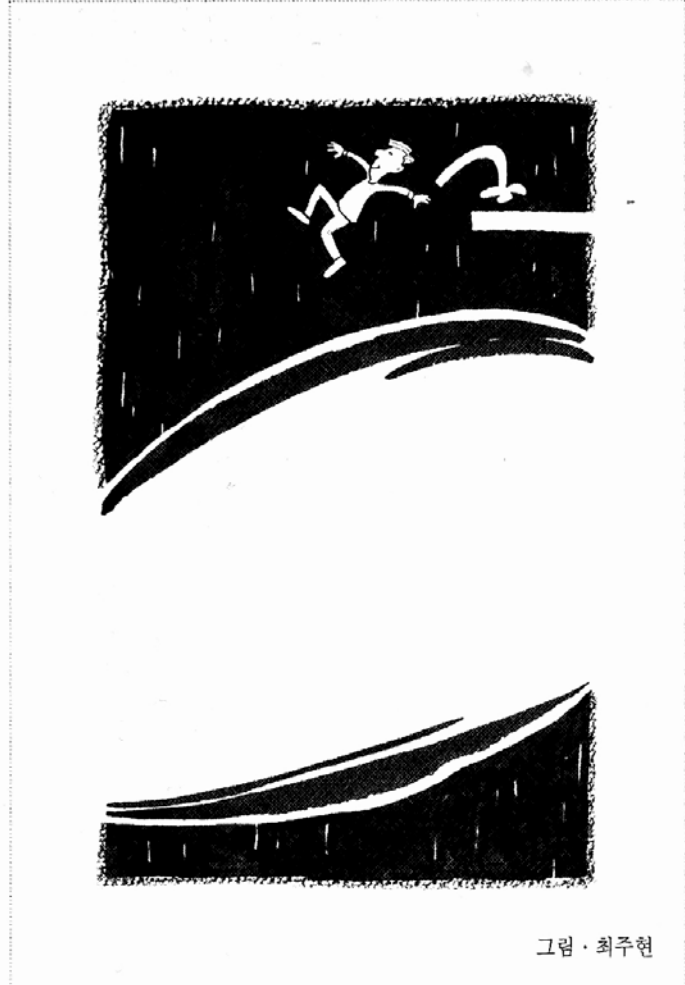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내가 모든걸 다한다는 생각 않고 근본의 심부름꾼인 것을 알아 그 역할 충실히 해야 참 수행자 재물·사랑·명예도 같은 이치죠

겁니다. 그러나 한생각을 현명하게 가지고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자식도 모두가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돌로 보지 마시고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 물욕 던져 모두 건지고 싶어요

**문** 제 삶을 제가 스스로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공부를 하면서 무엇인지 모를 답답함이 자주 느껴집니다. 관하면서 저는 완전히 빠져야 할까요? 주인공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하셨는데 무엇이 빠져야 하는지요? 주인공에 모두 맡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아직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물욕 던져서 다 건지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침 바랍니다.

**답** 우리가 이 마음공부 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주인공에 물욕 맡겨 놓아야지, 맡겼다고 하면서 도로 쥐고 나오지 말라고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인공 자리에 맡겼다가 다시 그걸 걱정을 하고 열려를 하는 건 맡겼던 서류를 도로 들고 나오는

격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일이 처리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몇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시 들고 나오요. 그리고는 안되니 되느니 하고 아단이지요. 왜 맡겼는데도 안 되느냐고 하면서요. 잘 맡겼으면 그럴 리가 있었어요? 못 맡겼으니까 그렇지. 못 맡겼으니까 의심스럽고 걱정이 되는 거구요. 그리고 또 "뭘 어떻게 다 놓으래? 사랑도 돈도 다 놓으면 어떻게 살라?" 하는데 그렇게 미저한 소리는 하지 마세요. 사랑도 돈도 다 그 속에 있는 건데 누가 사랑을 하지 말고 돈을 벌지 말라면서요? 하,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 겁니다. 자기 게 아니라 자기 거다 이겁니다. 이 말뜻을 알아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똑바로 그 뜻을 잘 아신다면 자기는 관리인으로서, 주인의 시봉자로서 올바르게 함으로써 시봉자는 주인에게 "차가 고장났으면 올바르게 고쳐서 끌고 다녀라!" 하고 그렇게 관하라 이 소립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전수가 없어도 아니 되고, 차가 없어도 안되죠. 기름이 없어도 안되죠?

어느 거 하나 없어서는 안 되니까 생명이 없어도 안되고, 분별이 없어도 안되고, 마음 내는 게 없어도 안된다는 얘기가입니다. 또는 마음 내는 게 없어도 안되지만 육신이 없어도 안됩니다. 그러니 세 개중에 어떤 게 높다고 하겠습니까? 높은 게 하나도 없어요. 통틀어서 그냥 일심입니다. 일심이 들고 나는데 삼세심이 그냥 들고 납니다. 삼세심이 일심이고, 일심이 삼세심이라. 과거 심도 미래심도 현재심도 그냥 일심입니다. 통틀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버려라, 놓아라 하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시주를 하거나 이웃에 몽땅 다 나누어 주라는 뜻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머거사도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처님과 다르지는 대승이었고, 부처이면서 대승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재산을 당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으로 비유를 하지만, 돈이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속 빠져 버린 상태에서 그 흐름을 관찰하고 관리하기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관리자일 뿐이 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 없고, 다만 그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줄 곳에 주고 받을 곳에서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수행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근본의 심부름꾼이고 시봉자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소우리가 하고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디 재물뿐이겠습니까, 사랑과 명예, 세상 모든 것이 그 이치는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내가 갖다, 내 것이다. 내 자식이다. 하고 그렇게 집착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주인공의 식구다, 주인공의 자식이다, 주인공의 심부름을 할 뿐이다 하고 생각하신다면 그 마음이 더욱 낙담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열심히 해 보세요.

### 빛은 죽은 뒤도 깊어야 합니다

**문** 스님, 저는 경찰의 일을 천직으로 알고 생활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IMF이후 부도를 당해 자살을 했던 사람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공중합의 점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조그마한 회사였는데 부도가 나서 돈을 갖지 못해 약속한 사채업자에게 쫓겨다니다가 끝내 자살을 하신 분이었는데, 만약에 전생애 공경적인 빛을 갖지 못하고 죽었다 하더라도 그 빛이 탐감이 되지를 않았다면, 다음 생애라도 그 돈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든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렇듯 한치의 에누리도 없이 다가오고 흘러가는 것이라면 저와 인연된 모든 이들 중 어떤 분은 선의 인연으로도 왔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악의 인연으로도 왔을 것인데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 모든 인연들을 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악의 인연과 선의 인연 양면을 다 놓고 말하고 돌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리를 몰라서 해매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런 점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빛을 진 게 아니라 너무 사람이 옹졸하고 큰 것만 생각하지 조그만 것 생각도 안하고, 밥이나마 제대로 먹으려고 애쓰지 않고 장사를 한다고 돈을 몽땅 얻어서 하다가 망했습니다. 망하고 보니까 빚쟁이는 빚쟁이대로 빛을 깊으라고

떨게나 즐라대든지 도대체 살수가 없었습니다. 오막살이 집 한 채마저 문서를 내놓으라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자식들을 거리로 나앉게 할 수가 없어서, 잘못은 자기에게 있지마는 자기도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준 사람한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반면에 부인은 너무나 착하고 아름답고 마음씨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너무나 뻔뻔하고 돈만 알고, 빛을 받으러 다니면서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얼마나 다그쳤는지 그만 빠져죽은 거죠.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모을 때는 그렇게 구석에 묻힌 마음으로 아주 피 한방울 안 나오고 물 한 방울 안 나오게끔 해야 돈을 모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돈 모으는 것도 순리적으로 버는 거하고, 말하지만 한 되를 구어졌으면 두 되를 받으려 하고 세 되를 받으려 하고 한다면 그 이자 받은 데서 또 이자가 붙어 돌아가서 나중에는 큰 돈이 되기까지 그렇게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자 받고 그러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그런 율짜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

그런데 어느 때인가 그 부인이 꿈을 꾸니까, 물에 빠져죽은 빛진 사람이 뒤편 와서 하는 소리가 내가 빛을 갖지 못하고 죽어서 이걸로라도 갚아달라고 하면서 큰 잉어 한마리를 잡아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잉어를 받았는데 그 날부터 태기가 있더니 어리애를 낳았습니. 그 집에 자식이 없다가 아이가 태어났으니 뭐 그냥 아담법식이 난 거죠. 그런데 바로 빛을 지고 죽은 분이 인연에 따라서 그 집 자식이 된 겁니다. 아들로 태어나 자라는데 늘 아버지하고는 앙숙이라, 뭐가 앙숙이냐 하면 만날 돈을 달라고 해서 나가서 다 쓰고 가방을 내던지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니 아버지는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서 그냥 뒤 달라는 대로 주고 키워는데 자라면서 점점 더 극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돈도 훔쳐다가 쓰고 그러니까 도무지가 안되니까 결국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들어서 죽고 나니까 그 재산이 다 없어지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망나니로 굴러가는데 어머니한테는 효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기서 살다가 조기가 옮겨봐도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우리 집으로 왔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어머니에게는 잘하는가? 그 어머니는 고약한 분이 아니라 참 마음씨가 아름답고 정직해서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나 애석해 생각하고, 그 집이 빛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소릴 듣고 항상 마음에 걸려 있던 분이거든요. 그러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네 이웃이든 좀 불친한 사람들을 보려면, 남편이 죽고 나서는 자기에 대해 관리가 있었으니까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분이었고.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 죽고 난 뒤에 저절로 착해지고, 어머니한테 잘하고 순리적으로 돈도 잘 벌고, 내가 애까지도 않고 하니 동네에서 "야, 그 아버지가 그렇게 모질게 하더니 그 사람 죽고 나서 저 아들 명품 좀 봐. 그 아버지가 벌을 받아서 그래" 하고 말을 하면서 죽었는데도 사람들이 오지도 않더라고요. 얼마나 모질게 했는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 모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디에서 인연이 돼서 이렇게 왔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자식은 어디서 저런 원수덩어리가 태어나고...?" 이러거든요. 자기가 원수덩어리를 만들어 봤

20면으로 계속

기쁜 안목을 밝고 고요한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에디션